

1. 인생집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인생집을 지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 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설계도를 갖고 지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인생집을 지어갈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어가는 인생집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어가는 인생집을 비교해서 설명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석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춧돌이 흩어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두 사람중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일생은 집을 짓는 과정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반석위에 지어가는 집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2. 내 집을 짓게 하소서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주춧돌이 흩어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큰 물이 일어나서 집에 부딪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란, 인생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집에는 반드시 큰 물이 일어나서 부딪칩니다. 반석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든, 흩어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집은 큰 물에 부딪치는 날이 옵니다. 인생에 불어 닥치는 '작은 물'이란, 인생 사는 동안 경험하는 슬한 어려움, 고난,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슬한 작은 물 앞에서 내가 지어가고 있는 인생집이 반석위에 지어가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주춧돌이 흩어 위에 지어가고 있는 집인지를 점검하고, 질문하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인생의 작은 물'은 기회입니다. 반석위에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집을 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생 설계도로, 인생 집의 재료로 가져와 집을 지어간다는 뜻입니다.

순모임 질문 (8월 27일 설교)

- 이번주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하나를 말해보시고,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나누어주세요.
- 오늘 설교 말씀중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 이번주 설교 내용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나누어보세요.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예수그린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안내** *새벽기도회(월-금) : 새벽 6:00 *수요오전예배 : 수요일 오전 10:30
*금요기도회 : 금요일 저녁 8:00
*순예배 : 순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립니다.
- 2023년 표어** - "씨를 뿌리고"
- 성찬식** -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 비전헌금** - 다음주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비전헌금은 선교사들에게 보내드립니다.
- 순 개강** - 9월 3일(주일)
* 순장 모임은 8월 30일(수)부터 진행됩니다.
- 고 3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 수시 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중보 기도합니다. * 김하은, 박성현
- 교사워크회** * 일시 : 9월 3일(주일) 오후 5시
- 9/10월 매일성경 판매** - 5,000원
- 오케스트라 단원모집** - 바이올린, 첼로, 플룻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 모임 시간 : 토 오전 10시 (악기 무상 대여)
- 예배 시청 안내** - 주일설교 및 새벽예배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참여방법 : 유튜브에서 '예수그린교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선교지 소식

오태기 선교사

8월부터 인도네시아 CCC와 함께 취업비자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예수 그린의 비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 온 세상에 바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 예수 그린의 사명

예수 그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